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동사 get의 다의성에 관한
인지적 접근



2008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박 현 숙

문학석사 학위논문

동사 get의 다의성에 관한 인지적 접근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박 현 숙

박현숙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월



주 심 언어학 박사 전 춘 배 (인)

위 원 언어학 박사 John Stonham (인)

위 원 언어학 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영문초록	iii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2.1. 영상도식	3
2.2. 바탕과 윤곽	5
2.3. 경로도식	8
2.4. 비유적 의미 확장	10
2.4.1. 은유적 의미 확장	10
2.4.2. 환유적 의미 확장	16
III. get의 다의성 분석	20
3.1. get의 원형의미와 확장	20
3.1.1. get의 원형의미	20
3.1.2. 참가자의 관계에 따른 의미	21
3.2. 행위자≠피영향자, 행위자≠도착지	24
3.2.1. 공간적 이동	25
3.2.2. 추상적 이동	26

3.3. 행위자≠피영향자, 행위자=도착지	29
3.3.1. 공간적 이동	29
3.3.2. 추상적 이동	30
3.4. 행위자=피영향자, 행위자≠도착지	33
3.4.1. 공간적 이동	34
3.4.2. 추상적 이동	34
3.5. 요약: get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36
IV. 결 론	40
참고문헌	41



A Cognitive Approach to the Polysemy of the Verb *get*

Hyun-Suk Park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verb *get*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verbs. When the verb *get* is used in various contexts and situation, it has a lot of meaning extensions.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polysemy of the verb *get* in the framework of Cognitive Grammar.

To analyze the systematic relationship among the interrelated meanings of *get*, this thesis adopts the notion that the core meaning of *get* is 'to make a patient move from a source to a goal' as proposed by Lee (2004).

From the core meaning, the study shows the following: First of all,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ous meanings of *get* are obtained by applying the profile shift to the same conceptual base. Second, semantic extension from the core meaning to the abstract meaning results from the domain shift.

This study recommends semantic extension as one way of learning vocabulary. Also, it is helpful for the nonnative students to understand the various meanings of a vocabulary item more easily and effectively.

I. 서 론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동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기본 동사는 실생활 영어에서 특히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 어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 동사가 가지는 다의성으로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사전 상에 나와 있는 몇 개의 전형적인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들의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기본 동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get*과 같은 기본 동사들은 원어민의 실제 생활 속에서 사전 내 언급된 의미 외의 다른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한 단어의 의미는 그것이 문장 속에서 어떤 단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의미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러 의미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get*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들로 나타나는지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1) a. She *got* a ring from her grandmother.
- b. They tried to *get* Marly sent to prison.
- c. You can *get* a lot of things into this bag.
- d. I guess I *got* you wrong. I thought you meant Tuesday, not today.

(1a)는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물려받았다는 의미이고, (1b)는 그들은 메리를 교도소로 보내려했다는 의미이다. (1c)는 당신은 그 가방에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1d)는 나는 당신을 오해한 것 같다

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1a-d)에서 get은 각각 ‘받다’, ‘...하게 하다’, ‘넣다’, ‘이해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 의미들은 서로 다른 의미로 연관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지만 모두 get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들이다. 더욱이 사전에서는 get에 대해 이보다 더 많은 다양한 의미들로 정의하고 있다¹⁾.

이러한 이유로 다의어 학습 시 몇 개의 나열된 고정된 의미들을 단순히 암기하는 식으로는 그 단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에 불충분하다. 그러나 만일 그 단어가 가지는 많은 의미들이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면 그것을 밝힘으로써 그 단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본 논문에서는 동사 get이 가지는 의미들의 상호 관련성을 인지 문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get의 의미 분석에 필요한 개념인 영상도식(image-schema), 바탕(base)과 윤곽(profile), 경로도식(path schema), 은유(metaphor) 및 환유(metonymy)의 개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동사 get의 원형의미를 알아보고 그 원형의미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다양한 의미들로 의미 확장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1) 동사 get의 의미를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2005)에서는 27개로, Macmillan English Dictionary(2002)에서는 15개로,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2005)에서는 17개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본 논문의 분석은 위 세 개의 사전 속에 정의된 get의 의미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용된 예문들 또한 그 곳에서 발췌되었음을 밝힌다.

Ⅱ.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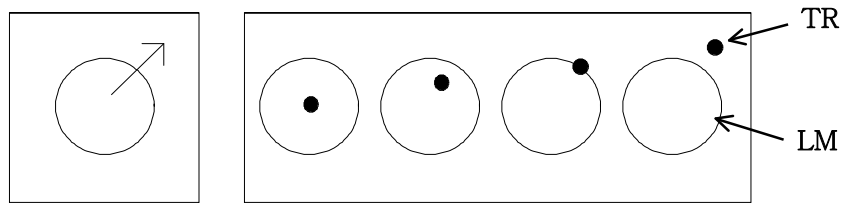
인지 언어학에서는 언어지식은 세상지식에 근거한다고 보고, 언어능력과 일반 인지능력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리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 구체적 영역과 추상적 영역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역 이동으로 인지영역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의 어휘가 다양한 개념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사 get이 지니는 의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영상도식, 바탕과 윤곽, 경로도식, 은유 및 환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2.1. 영상도식

영상도식이란 한 개념에 대한 우리의 신체적, 물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구조이다. 다의어의 여러 의미는 동일한 영상도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획득한다고 말할 수 있다.

Johnson(1987)에 따르면, “영상도식은 우리의 지각적 상호작용과 운동 계획의 반복에서 발생하는 동적인 패턴으로 그것은 우리의 경험에 응집성과 구조를 부여한다”라고 했으며, Lakoff(1987: 282)는 “영상도식이 물리적 경험에 의해서 이해된다”고 말하고 있다.

Lindner(1981: 60-61)는 우리의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out의 의미가 “한 구체적인 대상이 다른 대상이나 장소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OUT 도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그림 1>

<그림1>에서 OUT은 지표(landmark; LM)와 그 지표에 상대적으로 정의되는 탄도체(trajector; TR)가 차지하고 있는 일련의 지점을 부호화 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2) a. She went *out*.
b. He stuck his tongue *out*.

(2a)에서는 방이 지표가 되고 she가 탄도체가 된다. 그리고 (2b)에서는 입안이 지표가 되고 혀가 탄도체가 된다. <그림1>은 지표의 경계를 가로 질러서 구체적인 탄도체가 공간을 통해서 이동하는 out의 가장 원형적인 영상도식이다.

OUT 도식은 탄도체의 위치변화라는 공간 영역에 대한 도식일 뿐 아니라, 탄도체의 상태변화라는 추상적 영역에 대한 도식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공간 영역을 바탕으로 형성된 OUT 도식이 은유적 사상에 의해 추상적 영역에도 관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영역에서는 지표와 탄도체가 각각 구체적인 공간과 대상이지만, 추상적 영역에서는 지표와 탄도체가 각각 추상적인 공간과 대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2.3 및 2.4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2.2. 바탕과 윤곽

인간은 어떤 하나의 구조를 개념화시킬 때 그 구조의 바탕이 되는 다른 구조를 배경으로 삼는 능력이 있다. 즉, 어떤 의미구조를 완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의 기술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그 영역이 의존하는 좀 더 기본적인 개념화의 계층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간은 여러 종류의 개념구조에 상대적 현저성(salience)을 줄 수 있는데, 이 현저성에 따라 모든 언어 서술에서 관찰되는 영상의 첫 차원은 바탕(base)에 윤곽(profile)을 부과하는 것이다.

윤곽이란 바탕 안에서 특별히 현저성을 띠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 표현이 불러일으키는 바탕 가운데 초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 <그림2>을 살펴보자.



<그림 2>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면

위 그림과 같이 ‘직각 삼각형의 빗면’이라는 개념은 ‘직각 삼각형’이라는 바탕에서 그 바탕 중 어느 한 부분인 빗면에 초점이 주어진 경우이다. 만약 직각 삼각형이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빗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가

없다. 마찬가지로 ‘팔꿈치’라는 개념도 팔이라는 전체적인 모양에서 그 중 팔꿈치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처럼 바탕은 서술의 의미에 있어서 본질적이지만, 그 자체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되지는 않는다. 그 의미는 변별적인 현저성을 띠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하위 구조를 선택하는 것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어느 표현의 의미는 바탕이나 윤곽의 어느 한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닌 일반적인 인지능력 중에는 같은 객관적 상황을 여러 각도로 다르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바탕과 윤곽의 원리에 입각하여 주어진 바탕에 윤곽을 부여함으로써 구조의 의미값을 도출해 내는 방식은 우리의 일반 인지능력들과 무관하지 않다(Langacker 1987: 102-109).

다음 (3)의 동사 *break*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들은 윤곽 부여라는 개념화 과정들로 설명할 수 있다(Langacker 1991: 213-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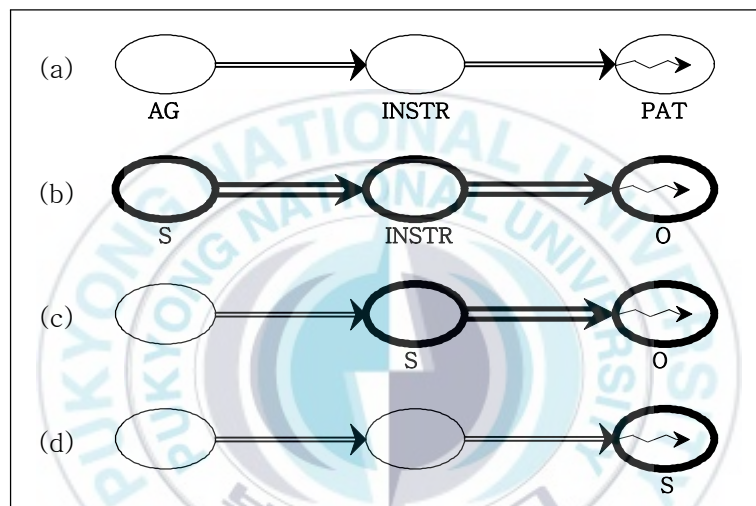
- (3) a. Floyd *broke* the glass with the hammer.
- b. The hammer easily *broke* the glass.
- c. The glass easily *broke*.

(3a)는 Floyd가 해머로 그 유리를 깨었다는 의미이고, (3b)는 해머는 그 유리를 쉽게 깨었다는 의미이며, (3c)는 그 유리는 쉽게 깨어졌다는 의미로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a-c)에 나타난 *break*의 의미들은 행위자와 피영향자, 그리고 도구라는 의미역들²⁾ 사이의 관계

2) 의미역 이론이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등이 그 문장 내에서 갖는 의미적 관계(Thematic Relation)를 다루는 이론이다. 이것은 마치 연극에서의 역할을 부여받는 등장 인물과 연극과의 관계와 유사하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의미역과 그 예를 살펴보자.

① Agent(행위역): *John* kissed *Mary*.

에서 비롯된다. 즉 (3)에 나타난 break의 여러 의미들은 이러한 여러 의미역들 중에서 어느 것이 윤곽으로 부여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3a)의 경우 break의 의미는 행위자(즉, Floyd)와 피영향자(즉, the glass), 그리고 도구(즉, the hammer)의 관계가 윤곽으로 나타나며, (3b)에서는 도구와 피영향자와의 관계로, (3c)에서는 피영향자만이 윤곽으로 드러난다. 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Langacker 1991: 217).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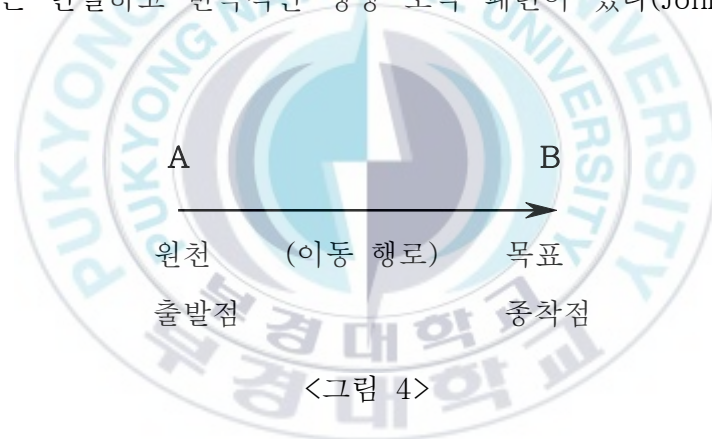
<그림3>에서 AG는 행위자를, INSTR은 도구를, PAT는 피영향자를 나타

- ② Patient(피영향역): The dog bit *the child*.
- ③ Theme(대상역): *Peter* stayed angry.
- ④ Experiencer(경험역): *Jimmy* saw the eclipse.
- ⑤ Instrument(도구역): John wounded Harry with *a knife*.
- ⑥ Goal(목표역): John passed the book to *Mary*.
- ⑦ Location(위치역): John hid the letter under *the bed*.
- ⑧ Source(출처역): Harry returned from *Paris*.
- ⑨ Benefactive(수혜역): John bought some flowers for *Mary*.

내며, S는 주어, O는 목적어를 나타낸다. <그림3a>는 동사 break의 개념적인 바탕을 나타낸다. 선택적으로 윤곽이 부여된 <그림3b-d>는 예문(3a-c) 각각의 break 의미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상황인 개념적 바탕 <그림3a> 위에 윤곽 부여를 통해 다양한 의미들과 문법구조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3. 경로 도식

우리의 삶에서 신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많은 행위나 사건들은 표면상으로 서로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지만, 이 모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적 구조를 갖는 단일하고 반복적인 영상 도식 패턴이 있다(Johnson 1987: 229).



<그림 4>

인간의 이해 과정이나 인식 과정에서 공간적 개념은 시간이나 그 밖의 추상적인 개념의 바탕이 된다. 즉, 장소 표현이 상태 변화의 원형 구실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태 변화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동 동사로 나타낼 수 있다(민은영 2003). 이런 관점에서 위 도식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걸어가는 것,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것, 친

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 등과 같이 다르게 보이는 무수한 사건들을 동일한 기본적인 관계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경로(PATH)는 위의 도식에서 보듯이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부분들은 원천 또는 출발점, 목표 또는 종착점, 원천과 목표를 연결하는 연속적인 위치들의 연쇄인 경로는 한 지점 A에서 다른 지점 B로 이동하는 행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 도식은 3장에서 이동 동사 *get*이 표현하는 은유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방식을 제공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4) a. I hit my head as I was *getting* into the car.

b. Your coffee is *getting* cold.

c. After a time you *get* to realize that these things don't matter.

(4a)는 구체적, 공간적 영역에서의 이동의 의미이고, (4b)는 개체의 상태가 변하는 것으로 이동이 해석되고, (4c)에는 인식의 변화가 이동의 은유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경로 도식과 [상태는 위치이다(STATES ARE LOCATION)]라는 은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관계를 가진다.

(5) 초기 상태 = 위치 A

변화 상태 = 위치 B

행위 연쇄 = A로부터 B로의 움직임

이외에도 경로도식은 시간 경과, 정신적인 활동이나 작용 등과 같이 많은 추상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4. 비유적 의미 확장

인간은 유사성과 인접성의 인지능력에 의해서 기존 낱말의 의미를 유연하고도 창조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여기서 유사성 인지능력이란 대상과 대상 간에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 곧 은유(metaphor)로써 기존 낱말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일이며, 인접한 인지능력이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대상을 관련시키는 능력, 곧 환유(metonymy)로써 기존 낱말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을 말한다. 먼저 유사성에 바탕을 둔 은유적 의미 확장에 대해 알아보자.

2.4.1. 은유적 의미 확장

은유란 어떤 한 영역의 개념으로써 다른 영역의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Lakoff and Johnson(1980: 5)은 은유의 본질을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The essence of metaphor is understanding and experiencing one kind of thing in terms of another)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때 비교적 구체적인 것을 원천 영역(source domain)이라하고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것을 목표 영역(target domain)이라 하는데, 은유 과정은 보다 구체적인 원천 영역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목표 영역을 표현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머리의 원형의미는 사람의 신체 부위로서의 머리인데 이를 바탕으로 한 은유의 확장은 임지룡(1997: 239)에서처럼 (6)와 같다.

(6) 머리의 은유적 확장

- a. 물리적 위치 (사물의 꼭대기) : 책상머리, 산머리, 못대가리
(사물의 앞쪽) : 머리맡, 뺏머리

- b. 공간적 위치 : 들머리, 머릿돌
- c. 사회적 위치 : 우두머리
- d. 순서적 위치 (시초) : 머리말, 말머리

(6)에서 보듯이 머리의 은유적 확장은 물리적 위치, 공간적 위치, 사회적 위치, 순서적 위치로 대상과 대상간의 유사성을 관련시켜서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경우이다.

Lakoff(1993)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은유를 제시했다.

- (7) a. 과정은 움직임이다.
- b. 과정의 진행은 움직인 거리이다.

(7)의 은유는 소정의 과정을 거치거나 과정이 진행되는 개념을 구체적인 공간에서의 움직임과 움직인 거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어 장소이동의 개념에 적용한 사례이다(이기동 2000).

장소의 개념 구조에는 움직이는 개체, 출발지, 길, 도착지, 움직이는 방향 등이 있고, 과정의 개념 구조에도 이에 대응이 되어 과정에 참여하는 개체, 시작(출발지), 진행(길), 완결(도착지), 방향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대응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8)	장소이동	과정
	출발지	----- 시작
	길	----- 진행
	도착지	----- 끝
	방향	----- 방향

(8)은 이기동(2000)이 분석한 동사 go에 대한 장소 이동의 개념을 과정의 개념에 대응시킨 것이다. 이 은유가 사용된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9) a. Everything *went* well with him.
b. How is your new job *going*?

(9a)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잘 풀렸다는 의미이고, (9b)는 당신의 새로운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의 의미이다.

이외에도 이기동(2000)이 go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상태의 변화는 장소 이동이다]는 은유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도착지 자리에 그 목적어가 옮겨갈 장소가 아니라 상태를 써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10)는 도착지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 (10) a. The patient *went* into a coma.
b. The tea has *gone* cold.

(10a)는 그 환자는 혼수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10b)는 그 차는 식었다는 의미이다.

은유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될 주요 은유로 용기 은유를 들 수 있다. Lakoff & Johnson(1980:29-32)에서는 용기 은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용기 은유에서는 방이 하나의 용기(container)로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상물도 용기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사건, 행동, 활동,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를 은유적으로 물건이나 물질 등으로 간주하여 그릇으로 개념화할 수 있

다. 다음은 본 논문을 이해하는 데 이용될 세 가지의 은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는 다양한 종류의 상태들이 용기로 개념화되는 것이다.

[상태는 그릇이다]([STATES ARE CONTAINERS])

(11) a. You've put me in a very rough spot.

b. We finally climbed out of the depression.

두 번째는 활동이 은유적으로 물질(Substance)로 간주되어 용기로 개념화되는 것이다.

[활동은 그릇이다]([ACTIVITIES ARE CONTAINERS])

(12) a. He got out of his work at last³⁾.

b. She is absorbed in the study of American Literature.

세 번째는 인간도 육체적 존재로서 각자는 용기가 될 수 있고, 인간의 시각적 범위도 하나의 용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야는 그릇이다]([VISUAL FIELDS ARE CONTAINERS])

(13) a. The building came into sight.

b. We came into view of the village.

이외에도 다양한 은유들로 우리는 언어생활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의미 확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은유적 의미 확장은 원형의미

3) 그는 그의 일을 그만두었다(He quited his work)는 의미임.

의 용법을 다른 국면(face)에 적용한 것으로 Heine et al(1991: 48)에서는 개념 영역의 일반적인 확장방향을 (14)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14) PERSON > OBJECT > ACTIVITY > SPACE > TIME > QUALITY

(14)은 개념이 비유적으로 확장될 경우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 ‘활동’, ‘공간’, ‘시간’, ‘질’의 차례로 의미 확장이 일어남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미 확장의 양상을 임지룡(1997: 239-241)을 참고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사람→짐승→생물→무생물의 확장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사람’이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에게 사용된 낱말을 이용하여 ‘짐승’, ‘생물’, ‘무생물’로 확장한다. 예를 들어 ‘먹다’라는 동사는 ‘사람이 음식물을 먹는 행위’에서 ‘짐승의 먹이를 먹는 행위’로 확장되며, ‘물기를 머금은 잎새’에서처럼 생물로 확장되며, ‘기름/풀 먹은 종이’에서처럼 무생물로 확장된다.

둘째, 구체성→추상성의 확장
여기서의 확장의 기준점은 구체성인데, 이를 바탕으로 ‘추상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밝다’의 경우 ‘빛’을 중심으로 ‘색→표정→분위기→눈, 귀→사리’의 밝음으로 확장된다.

셋째, 공간→시간→추상의 확장
확장의 기준점은 ‘공간’인데, 이는 우리가 가장 쉽게 지각할 수 있는 범주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간성, 추상성으로 진행된다. ‘짧다’라는 낱말은 ‘길

이'의 척도인 “연필이 짧다”에서 “시간이 짧다”, “경험이 짧다” 등으로 확장된다.

넷째, 물리적→사회적→심리적의 확장

확장의 기준점은 ‘물리적’ 공간인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심리적 공간으로 진행된다. 다음 (15)의 ‘~에 있다’에서는 세 가지 존재 방식이 이 과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a. 그는 서재에 있다. (He is in the library)

b. 그는 삼성 라이온스에 있다. (He is in the *Samsung Lions*)

c. 그는 내 마음속에 있다. (He is in my mind)

위의 (15)에서처럼 (15a)는 서재라는 물리적 공간이며 (15b)는 삼성 라이온스라는 사회적 단체인 사회적 공간이며 (15c)는 마음이라는 심리적 공간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일반성→비유성→관용성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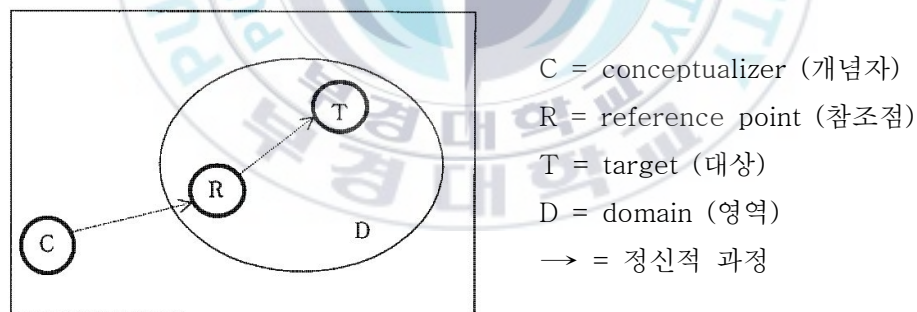
확장의 기준점은 ‘일반성’이다. 언어는 일차적으로 글자 그대로의 용법을 중심으로 쓰이며, 이차적으로 비유성을 획득하는데, 비유가 한층 굳어져서 관용성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위의 ‘짧다’에서 “연필이 짧다”는 글자 그대로의 일반적인 표현이며, “경험이 짧다”는 추상적 비유 표현이고, “입이 짧다”는 관용적 표현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미 확장의 원리는 ‘사람, 구체성, 공간, 물리적, 일반성’ 등을 중심으로 한 원형의미에서 은유적으로 의미 확장을 이

루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의어가 형성된다고 하겠다. 다음은 환유적 의미 확장을 살펴보자.

2.4.2. 환유적 의미 확장

앞에서 살펴본 은유는 비교 대상과 실체물이 각각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것을 좀 더 구체적인 영역을 빌어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달리, 환유란 하나의 영역 내에서 전체를 언급해 부분을 나타내거나, 또는 부분을 언급하여 전체를 나타내는 근접성(contiguity)에 기초한다. 즉, 하나의 개체를 사용하여 그 개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더 현저한 다른 개체를 지시하는 것이다. 특히, Langacker(1991)는 이러한 환유의 과정을 참조점(reference point) 과정의 부분으로 본다. 이러한 환유의 과정에는 참조점, 대상(target), 개념자(conceptualizer) 등이 있는데, 개념자는 대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이보다 더 현저한 참조점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환유의 과정

앞서 언급한 은유의 확장의 사례인 (6)과 비교하여 환유의 확장은 임지 룡(1997: 239)에서처럼 (16)과 같다.

(16) 머리의 환유적 확장

- a. 부위 - 전체: 머리를 헤아리다. (사람)
- b. 장소 - 부속물: 머리가 길다. (머리카락)
- c. 수단 - 기능: 머리가 좋다. (두뇌)
- d. 장소: 머리에 새기다. (두뇌)

(16)에서의 환유적 확장은 부위가 전체를 나타내고, 장소가 그에 대한 부속물을 나타내며, 수단이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로 인접한 대상을 관련시켜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환유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자.

(17) a. *The ham sandwich* is waiting for his check.

b. *The car* doesn't know where he's going.

(17a)에서 ham sandwich라는 표현은 햄 샌드위치를 주문한 어떤 실제의 사람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위의 <그림5>와 연관지어 본다면, 햄 샌드위치는 참조점에 해당되고, 햄 샌드위치를 주문한 사람은 대상에 해당되며, 이들은 같은 영역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햄 샌드위치를 주문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다 현저한 햄 샌드위치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환유가 쓰인 경우이다. (17b)에서 참조점은 The car로 대상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이다. (17)는 은유의 실례가 아닌데, 그 이유는 우리가 햄 샌드위치나 자동차에 사람의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햄 샌드위치나 자동차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유와 환유는 서로 다른 종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은유는 원칙적으로 한 사물을 다른 사

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식이므로 그 주된 기능이 이해인 반면, 환유는 한 개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개체를 대신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시(reference)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환유도 은유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구조화하고, 인간의 경험 속에 토대를 두고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환유가 사용되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Lakoff and Johnson 1980).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함(THE PART FOR THE WHOLE)

(18) a. We don't hire longhairs.

b. Get your butt over here

생산자로 생산품을 대신함(PRODUCER FOR PRODUCT)

(19) a. He's got a Picasso in his den.

b. I hate to read Heidegger.

장소가 기관을 대신함(THE PLACE FOR THE INSTITUTION)

(20) a. Washington is insensitive to the needs of the people.

b. Hollywood isn't what it used to be.

장소가 사건을 대신함(THE PLACE FOR THE EVENT)

(21) a. Watergate changed our politics.

b. Pearl Harbor still has an effect on our foreign policy.

(18)~(21)에서 보듯이 환유는 일상 언어에서 많은 부분이 관습화되어 있

으며, 창의적으로 일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유의 이러한 창의성은 어느 표현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확대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동사 get의 의미 분석에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음 장부터 이러한 개념들을 토대로 get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get의 다의성 분석

이 장에서는 get의 원형의미를 밝히고 그 원형의미를 이루는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의미를 분류한 후 윤곽부여와 비유적 확장을 통해 get이 다양한 의미로 표현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get의 원형의미와 의미 확장

3.1.1. get의 원형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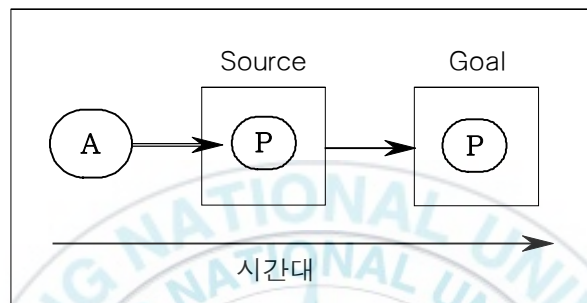
get은 영어 동사들 가운데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고 다양한 의미들로 사용된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의미들 중 어떤 것들은 서로 전혀 연관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get이 사용된 문장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다양한 의미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원형의미라고 한다. 이기동(2004: 84-90)에서는 get이 가지고 있는 원형의미는 행위자(agent)가 피영향자(patient)에 영향을 끼쳐 피영향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장소의 이동이라고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 get의 원형의미로 삼고 실제로 get이 가지는 많은 의미들이 이 원형의미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만들어졌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get의 원형의미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 위해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22) The general *got* the troops across the river.

(22)에서 get은 행위자 the general이 피영향자 the troops를 강의 한쪽에서부터 다른 한쪽으로 이동시켰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get이 나타내

는 사건의 바탕에는 행위자, 행위자의 영향을 받는 피행위자, 피영향자의 원래 위치인 출발지, 피영향자가 움직인 다음의 위치인 도착지가 있으며, 이를 영상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6>과 같다(이기동 2004: 85). 이 도식에서 이중 화살표는 행위자가 피영향자에 영향력을 행사함을 나타내고, 단순 화살표는 피영향자의 경로를 나타낸다.

행위자(A) – 피영향자(P) – 출발지(S) – 도착지(G)



<그림6 : get의 원형의미 도식>

3.1.2. 참가자의 관계에 따른 의미

동사 *get*이 나타내는 원형의미의 참가자인 행위자, 피영향자, 출발지, 도착지가 항상 문장 속에서 다른 개체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참가자가 서로 겹치는 경우도 있다. 다음 (23)에서 행위자와 피영향자의 관계를 살펴보자.

(23) a. They can get a package across the Atlantic within 24 hours.

A P

b. You can get a jacket from a thrift shop for just a few dollars⁴.

A=G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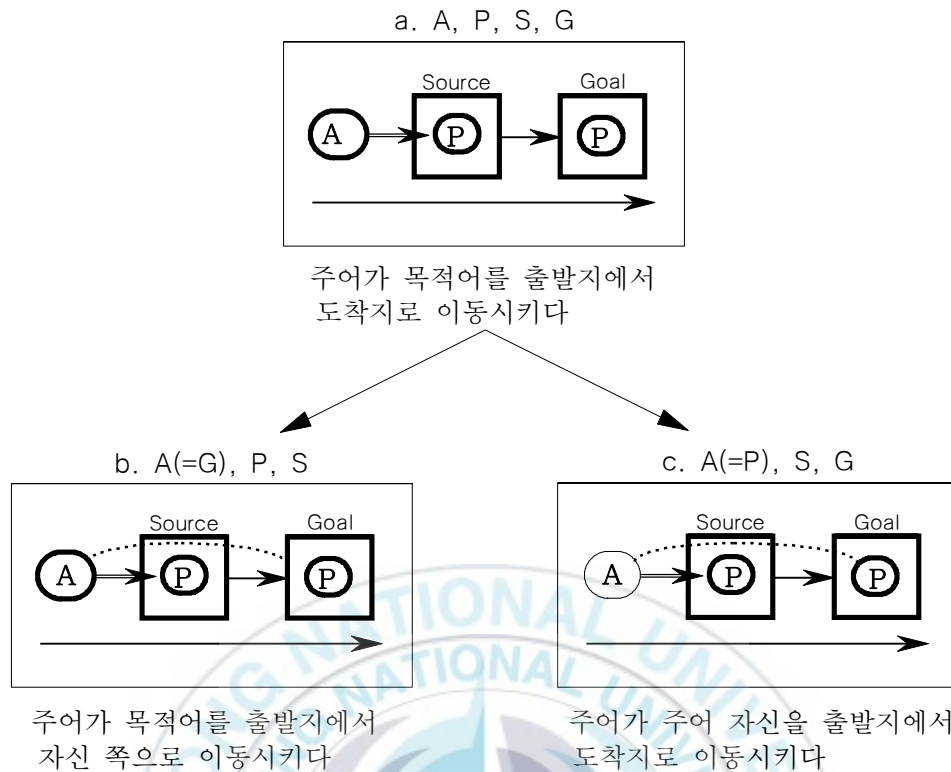
4) You can get yourself a jacket from a thrift shop for just a few dollars의 의미임.

c. If you *get* to the restaurant before us just wait at the bar.

A=P

(23a)에서의 행위자 *they*는 피영향자 *a package*와 다른 개체이며, *get*의 의미는 행위자인 그들이 피영향자인 소포를 대서양의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가로질러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3b)에서는 행위자 *you*와 도착지가 같은 개체로 쓰여 *get*은 피영향자 *a jacket*를 행위자인 주어에게로 옮겨놓는 것, 즉 주어가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신은 중고품 할인 매장에서 단지 몇 달러에 재킷을 살 수 있다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23c)에서는 행위자가 피영향자와 동일한 개체로 표현되어 *get*은 행위자가 스스로 이동함을 나타낸다. 즉, 당신이 당신자신을 식당 쪽으로 이동시킴을 의미하여 당신이 식당에 가다라고 이해된다.

이와 같이 <그림6>의 원형의미에서 참가자들을 겹쳐 사용함으로써 *get*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get*의 의미는 참가자의 관계에 따라 사전내 정의와 예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크게 <그림7>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A:행위자(agent), P:피영향자(patient), S:출발지(source), G:도착지(goal)

<그림 7> 참가자들의 관계에 의한 분류

<그림7a-c> 각각은 앞서 설명한 예문 (23a-c)의 도식으로서, <그림7a>는 행위자(A)와 피영향자(P), 도착자(G)가 각각 다른 개체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한 도식이고, <그림7b>는 행위자(A)와 도착지(G)가 동일한 경우를 나타내며 이를 점선으로 표시했다. <그림7c>에서는 행위자(A)와 피영향자(P)가 동일한 개체를 의미하며 이 또한 점선으로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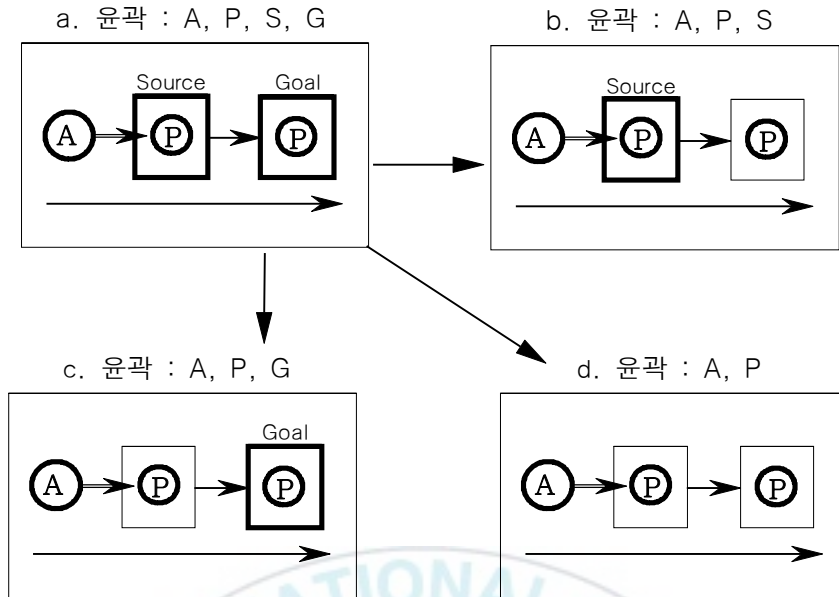
get의 의미 확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림7a-c>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느 참가자가 윤곽으로 부각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은유 또

는 환유를 사용함으로써 get의 의미는 공간적 이동에서부터 다양한 추상적 이동으로까지 표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그림7a-c>의 각각의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get의 의미를 알아보고, 어떻게 get의 의미가 확장되는지를 공간적 이동과 추상적 이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행위자≠피영향자, 행위자≠도착지

우선 get의 원형의미에서 행위자, 피영향자, 도착지가 모두 다른 경우로 get이 ‘주어가 목적어를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이동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도식 <그림7a>에 해당되며, 이를 세분화하면 <그림8>과 같다. 기본의미인 <그림8a>에서 표현하고자하는 의도에 따라 <그림8b-d>와 같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윤곽으로 드러내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



<그림 8> 행위자≠피영향자, 행위자≠도착지

3.2.1. 공간적 이동

다음은 *get*이 공간적 이동으로 표현된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 (24) a. We couldn't *get* the piano through the door
 b. I have to go and *get* my mother from the airport.
 c. I must go home and *get* the kids their tea.

(24a)는 우리가 그 피아노를 그 문을 경계로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나타내며 도식 <그림8a>에 해당된다. (24b)는 내가 피영향자인 나의 어머니를 출발지인 그 공항에서 데려옴을 나타내며 도착지는 윤곽으로 드러내지 않아 도식 <그림8b>에 해당된다. (24c)는 행위자인 내가

피영향자인 차 tea를 도착지인 아이들에게 이동시킴 즉, 차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을 뜻하며 도식 <그림8c>에 해당한다. <그림8d>의 경우는 공간적 이동의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대부분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추상적 이동으로 사용됨으로 다음절 3.2.2.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공간적 장소이동이 아니라 추상적인 상태변화로 표현되어 get의 의미가 ‘이동시키다’에서 ‘(어떠한 상태로) 변화다’로 의미 확장된 경우를 살펴보겠다.

3.2.2. 추상적 이동

get의 원형의미에 [상태의 변화는 장소이동이다] 또는 [상태는 그릇이다]라는 은유를 적용하면 도착지 자리에 그 목적어가 옮겨갈 장소가 아닌 상태를 써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은 도착지 자리에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온 경우이다.

- (25) a. Don't *get* your dress dirty!
- b. She soon *got* the children ready for school.
- c. Can you really *get* that old car going again?
- d. It's not hard to *get* him talking—the problem is stopping him!

(25a)는 당신의 드레스를 더러운 상태로, (25b)는 그 아이들을 학교갈 준비가 된 상태로, (25c)는 그 오래된 차를 갈 수 있는 상태로, (25d)는 그를 말하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get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모두 피영향자인 목적어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도착지 자리에 to부정사, V-ing형, V-ed형을 사용하여 피영향자의 상태 변화를 표현한 예이다.

(26) I can't *get* the car (to go/going/gone).

(26)는 주어 'I'가 목적어 'the car'를 괄호 안에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함을 *get*이 나타내고 있다. *to go*는 자동차 *go*의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고, *going*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고, *gone*은 자동차가 *go*가 나타내는 과정의 끝부분에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26)는 '나는 그 차를 가게/가고 있게/가버리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된다(이기동 2004: 88-89). 여기서 도착지 자리에 V-ed형이나 to부정사를 사용한 경우를 좀 더 살펴보자. *to go*는 피영향자가 *go*의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상태로 능동적 의미를 나타내고, *gone*은 피영향자가 *go*의 과정을 끝낸 의미로 수동적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한 예문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a. I got my purse stolen.

b. I couldn't get the car to start this morning.

(27a)에는 도착지 자리에 *stolen*으로 피영향자인 지갑의 상태를 나타내어 지갑이 도난당한 것을 표현했으며, (27b)는 도착지 자리에 *to start*로 피영향자인 차의 상태를 나타내어 차를 출발시키는 것을 표현했다. 이와 같이 *get*의 의미는 도착지가 V-ed형으로 쓰인 경우는 피영향자가 '...를 당한' 상태로, to부정사로 쓰인 경우는 '...할' 상태로 상태변화를 시키는 의미를 나타낸다.

*get*의 원형의미에서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가 생략된 <그림8d>의 경우는 대부분 추상적 이동에 쓰인다. 행위자가 피영향자를 이동시키지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시키는지 표현되지 않은 이와 같은 경우는 행위자인 주어가 피영향자인 목적어에게 영향을 주어서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나타내

지만 그 명확한 상태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문맥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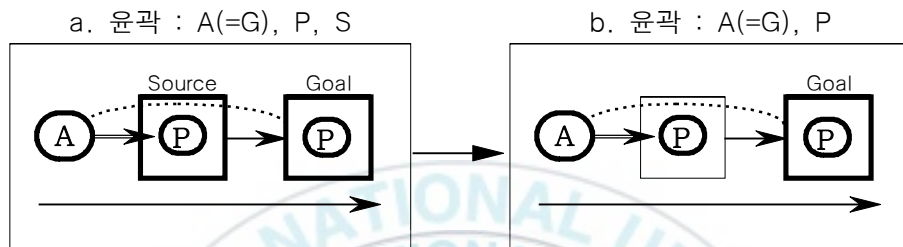
- (28) a. What *gets* me is having to do the same thing all day long.
b. Give him a technical question - that'll really *get* him!
c. That bit in the film when he finds out that his daughter is alive-that always *gets* me!
d. I'll put the kids to bed while you're *getting* the dinner.

(28a-c)는 피영향자 자리에 사람이 오고, 상태변화의 전·후에 대한 언급 없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상태가 변화됨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28a)는 하루 종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피영향자인 나의 감정을 변화시킴을 의미하여 What *gets* me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28b)는 그에게 기술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피영향자인 그의 상태를 변화시킴을 의미하여 that'll really *get* him은 그것은 정말로 그를 당황케 만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28c)는 그가 그의 딸이 살아있음을 알게되는 그 영화의 장면은 피영향자인 나의 감정을 변화시킴을 의미하여 that always *gets* me는 그 장면은 항상 나를 감상적으로 만든다라고 이해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28d)는 피영향자로 식사가 나오는 경우로 식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준비된 상태로 변함을 의미하여 당신이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나는 아이들을 재우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get*의 원형의미에서 행위자, 피영향자, 도착지가 모두 다른 개체로 표현되는 경우에 도착지를 부사나 전치사구외에도 명사, 형용사, V-ing형, V-ed형, to 부정사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공간이동 외에도 많은 다양한 추상적 이동으로 의미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3. 행위자≠피영향자, 행위자=도착지

get의 원형의미에서 행위자와 도착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get은 ‘주어가 목적어를 출발지에서 주어 자신 쪽으로 이동시키다’라는 의미이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9a>와 같다. 그리고 출발지에 윤곽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그림9b>와 같이 도식화할 수도 있다.



<그림 9> 행위자≠피영향자, 행위자=도착지

<그림9>와 같이 주어가 행위자이며 동시에 피영향자인 목적어의 도착지가 된다는 의미는 주어가 목적어를 가지다, 얻다, 받다 등의 의미로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은 <그림9>에 해당하는 get의 의미들을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경우와 추상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3.3.1. 공간적 이동

다음 예문에서의 get 의미는 피영향자인 목적어가 행위자인 주어 쪽으로 공간적 이동을 하는 경우로 (29a)는 <그림9a>로, (29b)는 <그림9b>로 각각 도식화될 수 있다.

(29) a. I *got* a letter from Dave this morning.

b. He *gets* about \$40,000 a year.

(29a)는 내가 피영향자인 편지를 Dave로부터 나에게로 이동시켰다는 의미로 여기서의 *get*은 받다, 얻다의 의미로 쓰였다. (29b) 또한 피영향자인 사만달러의 돈을 행위자인 그의 쪽으로 이동시킴을 나타내어 돈을 받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여기서 출발지인 그 돈의 출처는 문장 속에서 윤곽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그림9>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는 *get*의 의미에서 목적어로 편지, 돈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개체가 올 경우는 그 목적어가 공간적으로 주어에게로 이동됨을 의미한다.

3.3.2. 추상적 이동

행위자와 도착지가 동일할 때 피영향자가 추상적인 개체로 쓰인 경우는 도착지가 행위자인 주어의 정신이나 마음과 같은 추상적인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때 *get*의 의미는 ‘주어가 그 목적어를 경험하다/이해하다/가지다’ 등으로 나타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30) a. She didn't *get* the joke.

b. I *got* a shock when I saw the bill.

(30)에서 피영향자는 the joke, a shock으로 추상적인 개체이므로 그 도착지는 주어의 정신이나 마음인 추상적인 의식영역이다. 따라서 (30a)는 농담이 주어의 의식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음, 즉 이해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며, (30b)에서는 충격이 주어의 정신 속으로 들어왔음을 즉, 충격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 감정 등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움직이는 것도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영상화될 수 있다. 이것은 Reddy(1993)에 제시된 [감정과 생각은 개체이다(EMOTIONS AND THOUGHT ARE ENTITY)]라는 은유적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언어 형식은 그릇이고 이야기나 감정, 생각 등을 그릇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물처럼 인식하여,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개체로 개념화해서 어떤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다.

다음은 이동의 피영향자로 병명이 오는 경우이다. 이때 *get*은 주어가 목적어인 병을 경험하다/가지다는 의미로 (31)과 같이 그 병에 걸렸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1) a. I *got* this cold from you!
 b. She *gets* really bad headaches.
 c. I *got* food poisoning at that cheap little seafood restaurant.

(31a)는 나는 당신으로부터 감기를 가졌다, 즉 감염되었음을 의미하고, (31b)는 그녀는 심한 두통에 시달림을 의미하고, (31c)는 나는 그 싸고 작은 해산물 요리전문 식당에서 식중독에 걸렸음을 의미한다.

다음 예문들은 피영향자가 참조점이 되어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환유적 의미 확장에 대한 사례이다.

- (32) a. We can't *get* Channel 5 in our area.
 b. Will you *get* the phone?
 c. I wanted to speak to the manager but I *got* his secretary instead.
 d. I usually *get* the bus to work.

(32a)의 채널5은 채널5의 전파를 의미하여 ‘get Channel 5’은 채널5 전파를 수신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32b)의 그 전화는 그 전화로 걸려온 사람과의 통화를 의미하여 ‘get the phone’은 그 전화를 받아 통화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c)의 그의 비서는 그 비서와의 통화를 의미하여 ‘got his secretary’는 그 비서와의 통화함을 나타낸다. (32d)의 버스는 버스에 탑승함을 의미하여 ‘get the bus’는 그 버스에 탄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도 get이 ‘있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등의 의미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get의 원형의미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기까지 하지만 앞서 2.4절에서 언급한 용기 은유 중 [시야는 그릇이다(VISUAL FIELDS ARE CONTAINERS)]가 적용된 예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방이 하나의 용기로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육체적 존재로서 각자는 용기가 될 수 있고, 인간의 시각적 범위도 하나의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은유이다. 이런 관점으로 아래의 예문을 보자.

- (33) a. You⁵⁾ *get* all these kids hanging around in the street.
 b. There are all these kids hanging around in the str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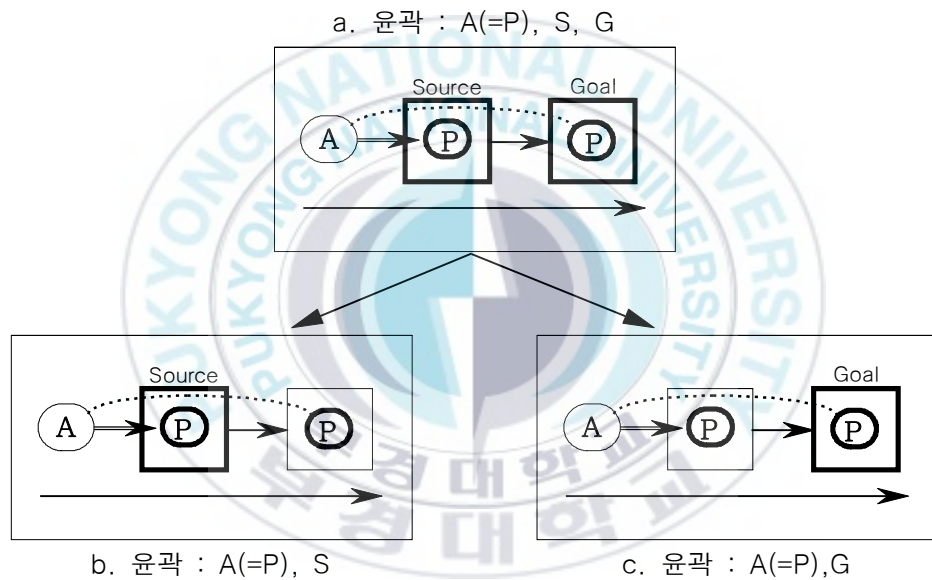
(33a)은 아이들이 나의 시각에 들어옴을 뜻하며 이것은 곧 그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예문(33b)와 그 의미하는 바가 같다. 따라서 예문(33a)에서의 get은 주어 앞에 목적어가 ‘있다’, ‘존재하다’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get의 원형의미에서 행위자와 도착지가 같은 개체로 표현된 경우로 피영향자인 목적어 자리에 구체적인 개체 외에도 생각, 이야기, 병명 등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체가 옴으로써 get의 의미가 공간적 이동 외에도 많은 다양한 추상적 이동으로 의미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5) 여기서의 You는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함.

3.4. 행위자=피영향자, 행위자≠도착지

get의 원형의미에서 행위자와 피영향자가 동일한 경우는 ‘주어가 주어 자신을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이동시키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주어가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10a>와 같다.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그림10b,c>와 같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윤곽으로 드러내지 않고 생략할 수도 있다⁶⁾.



<그림 10> 행위자=피영향자, 행위자≠도착지

6) 이 경우는 행위자와 도착지가 항상 다르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행위자와 피영향자가 같고 행위자와 도착지가 같으면 당연히 피영향자와 도착지가 같아야 하는데 피영향자와 도착지가 같다는 것은 이동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원형의미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3.4.1. 공간적 이동

주어가 주어 자신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를 살펴보자.

- (34) a. The bridge was destroyed so we couldn't *get* across the river.
b. We *got* to San Diego at 7 o'clock.
c. We didn't *get* to bed until 3 a.m.
d. We must be *getting* home; it's past midnight.

(34a)는 강을 가로질러 가다로, (34b)는 샌디에고에 도착하다로, (34c)는 침대로 가다 즉 잠자리에 들다의 의미로, (34d)는 집에 가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4)에서의 *get*은 모두 주어가 주어 자신을 장소이동 시켜서, 어느 장소에 이르거나, 도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4.2. 추상적 이동

get 동사 뒤에 도착지로 형용사가 와서 행위자이며 피영향자인 주어가 어떤 상태로 변화됨을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자.

- (35) a. She's upstairs *getting* ready.
b. He'll soon *get* used to the climate here.

(35a)는 그녀가 그녀 자신을 준비된 상태로 변화시킴을 나타내고, (35b)는 그가 여기 기후에 익숙한 상태로 변화됨을 나타낸다.

다음은 도착지로 V-ing형이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자.

(36) a. I *got* talking to her.

b. We need to *get* going soon.

(36a)는 나는 그녀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내가 내 자신을 말하는 상태로 변화시켰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36b)는 우리는 곧 가야한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는 상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도착지 자리에 V-ed형이 나오는 경우로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37) a. They're *getting* married later this year.

b. The team is determined not to get beaten again.

(37a)는 그들은 올해 말에 결혼할 것이라라는 의미로 행위자 they가 그들 자신을 결혼한 상태로 변화시킴을 나타낸다. (37b)는 그 팀은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먹었다는 의미로 행위자 the team이 그들 자신을 지는 상태로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은 도착지 자리에 to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자.

(38) a. He *got* to try out all the new software.

b. She's *getting* to be an old lady now.

c. You'll like her once you *get* to know her.

여기서의 get은 행위자인 주어가 동시에 피영향자가 되어 도착지인 to부정사가 나타내는 행위를 시작하게 되다는 의미로 ‘...하게 되다’는 표현을 만든다. 따라서 (38a)는 그는 모든 새 프로그램을 시험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고, (38b)는 그녀는 노처녀가 되어 간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38c)와 같이 get 뒤에 인지, 인식과 관계되는 의미의 to부정사가 와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문제들이 우리에게로 다가와 우리의 인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38c)의 get to know는 알게 되다의 의미가 된다.

이상과 같이 get의 의미는 그 원형의미에서 행위자와 피영향자가 동일한 개체로 표현된 경우일 때도 도착지 자리에 부사나 전치사구외에도 형용사, V-ing형, V-ed형, to 부정사를 사용하여 공간적 이동 외에도 많은 다양한 추상적 이동으로 의미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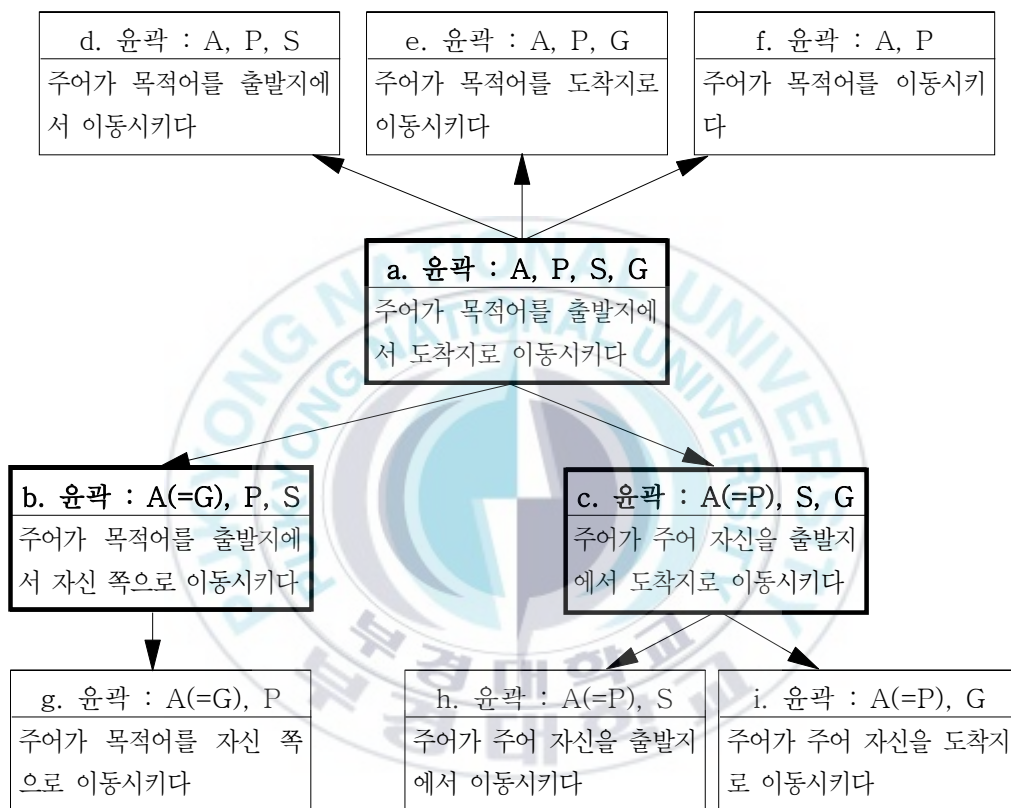
3.5. 요약: get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지금까지 get의 의미들을 사전 속 예문들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get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들은 하나의 원형의미에서 확장되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확장은 get의 원형의미를 이루는 참가자, 즉 행위자, 피영향지, 출발지, 도착지가 문장 속에서 겹치거나 생략되기도 하고, 은유나 환유를 통해 비유적 의미로 표현됨으로써 다양한 의미들을 만들어 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get의 의미 확장을 우선 원형의미 속 참가자들의 관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기본의미로 분류하였다.

그 첫 번째는 원형의미의 참가자 모두가 다른 개체로 표현되는 경우로 ‘주어가 목적어를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이동시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참가자 중 행위자와 도착지가 동일한 개체로 표현되어 ‘주어가 목적어를 출발지에서 자신 쪽으로 이동시키다’라는 의미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가자 중 행위자와 피영향자가 동일

한 개체로 표현되는 경우로 ‘주어가 주어 자신을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이동시키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 get의 의미에서도 각각 출발지나 도착지가 윤곽으로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림11>와 같이 9가지의 의미들로 확장되어 표현될 수 있다.



<그림 11> 참가자들의 관계 및 윤곽여부에 의한 분류

그러나 출발지나 도착지가 생략되는 경우는 대부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추측 가능할 경우로 get의 의미를 크게 변형시키지는 못했다. 다시

말해 get의 의미는 <그림11a>의 형태로 구성된 문장과 <그림11d-f>의 형태로 구성된 문장에서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11b>와 <그림11g>, <그림11c>와 <그림11h,i>에서도 get의 의미는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et의 의미를 <그림11a-c>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아래의 (39a-c)와 같은 기본의미들로 우선 분류하고, 그 분류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비유적 의미 확장을 통해 다양한 추상적 이동으로 표현되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 (39) a. 주어가 목적어의 위치/상태/행위여부를 변화시키다. <그림11a>
 b. 주어가 목적어를 가지다/경험하다/행하다. <그림11b>
 c. 주어의 위치/상태/행위여부가 변하다. <그림11c>

(39a)의 경우에는 목적지 자리에 부사, 전치사구외에도 명사, 형용사, V-ing형, V-ed형, to부정사의 형태를 사용하여, 공간적 이동 외에도 상태 변화나 행위여부의 의미로 표현되었다. 행위자와 목적지가 같은 (39b)의 경우는 피영향자인 목적어를 구체적인 개체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체인 이야기, 감정, 생각 등으로 확장하여 사용하여 많은 추상적 이동의 의미를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행위자와 피영향자가 같은 (39c)에서도 목적지 자리에 부사, 전치사구외에 형용사, V-ing형, V-ed형, to부정사의 형태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장소이동에서 추상적인 변화의 의미로 확장하여 표현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전에 정의된 get의 의미들은 모두 (39)의 의미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것을 벗어나는 예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get이 가지는 많은 의미가 서로 무관하지 않고 하나의 원형의미에서 확장되어 만들어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get의 의미를 다양하게 변형시키고 확장시키는 주요 요인은 문장 내 출발지/도착지 및 피행위자의 성격으로, 이들을 구체적인 개체로 사용하여 단순한 공간상의 이동을 나타낼 수도 있고, 추상적인 개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상태 변화나 행위여부를 표현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get이 만드는 의미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행위자와 그 사건에서 이동을 보여주는 피영향자는 생략되지 않고 원형의미의 필수요소로 항상 주어나 목적어로 문장 속에서 표현되었다.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행위자가 피영향자나 목적지와 동일한 개체로 표현되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행위자가 출발지가 된 예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문장 속에서 출발지가 많이 생략되고 도착지의 생략은 드물었다. 이로써 get의 동사가 이동을 나타냄에 있어서 이동전보다는 이동한 후의 결과에 더 초점을 두는 동사라고 여겨진다.



IV. 결 론

지금까지 영어 기본 동사들 가운데에서도 그 활용도가 넓고 사용 빈도가 높은 동사인 get의 다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인지 문법적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get의 원형의미를 행위자가 피영향자를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옮기는 장소의 이동이라고 보고, 그 원형의미 속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get의 의미를 나눌 수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주어가 목적어의 위치/상태/행위여부를 변화시키다’이고, 두 번째는 ‘주어가 목적어를 가지다/경험하다/행하다’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주어의 위치/상태/행위여부가 변하다’이다. 그리고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윤곽부여 및 은유와 환유를 적용해 get의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되어 표현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게 된 get의 의미들은 사전 내 고정된 몇 개의 정의를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해되어진다.

따라서 영어 어휘를 학습함에 있어서 우선 원형의미를 숙지한 후 그 원형의미에서 다양하게 의미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이해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어휘 학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원리가 다른 다의어에도 적용이 되어 앞으로 어휘의 다의성에 대해 인지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영어 어휘 학습에 대한 발전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민은영 (2003). 「은유에 의한 영어동사 come의 의미 이해」.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기동 (2000). GO의 의미분석. 「담화와 인지」 7(1), 123-154.
- 이기동 (2004). 「영어 구절동사」. 서울: 교문사.
- 임지룡 (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200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Vol. 1.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eine, B., Claudi, U. & Hünnemeyer, F.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hnson, M. (1987). *The Body in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1993).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Ortony, A. (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W. (1991).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Mouton de Gruyter.
- Lindner, S. (1981). *A Lexico-semantic Analysis of English Verb Particle Constructions with out and up*.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 Macmillan English Dictionary* (2002). Oxford: Macmillan Press.
-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200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eddy, M. J. (1993). The Conduit Metaphor: A Case of Frame Conflict in Our Language about Language. In Ortony, A. (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